

1. 설교 전 기도(20140817)

다 같이 기도 하시겠습니다.

오늘 이렇게 조용한 날에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께 계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, 어둠을 가지고 거룩함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특권을 허락해 주신을 감사 드립니다. 특별히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온 가정이 같이 나와서 힘을 다해 찬양을 드리고 또 우리의 아될 것을 아뢰고 또 교제를 나누고 또 이렇게 말씀 선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 드립니다.

지난 주에는 여러 가지로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.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영적인 기상도가 아주 좋지 않은 가운데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주일에 따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악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그 한계 안에서 이루어 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하고 이 모든 것의 끝이 있다고 하는 사실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.

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갈 때에 좁은 길을 택하고 King James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이 성경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이 믿음도 더욱더 확고히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.

아버지!

우리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 지도자들, 또 교회 목사들,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을 주시옵며 이 난국을 잘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.

아버지!

또 8월 15일 광복절, 또 건국일 기념행사도 우리가 가겠습니다.

이제 내년이 되면 이제 광복이 됐고, 또 나라가 갈라진 지 70년이 되는 그러한 때가 됩니다.

아버지!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70년 바빌론 포로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자기들이 고대하던 그 고국에 들어간 것처럼,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70년 이내에 분단이 난 이 나라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민주적으로 정말 자유롭게 평화 통일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.

아버지!

이 시간에 몸이 아파서 고통 받고 있는 ‘예성’ 군을 위해서 기도 합니다.

장이 꼬여서 유착이 돼서 소화가 안되고 오랫동안 수술을 받았지만 좋은 조짐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사오니 우리 어머니 김광숙 자매님과 또 아들 ‘예성’ 군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,

아버지!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,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,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.

오늘 부족한 사람이 계시록 18장에 나와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언하려고 합니다. 지식이 부족하고 아는 것이 미천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을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될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.

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